

# 전통예술지역 브랜드상설공연 제주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 간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협력사업' 선정... 11월 14~15일 공연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지역 간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류·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으로, 재단은 총 2,8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024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우수작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임실군)의 '출추는 양상쇠 - 세상은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를 대표작으로 기획해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운)과 협력해 해당 공연을 제주 지역에 소개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는 11월 14~15일 양일간 제주 김정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특히 '출추는 양상쇠'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을 기반으로, 임실군 필봉마을의 삶과 공동체 정신을 풀어낸 전통연희극이다. 공동체 연희의 핵심 인물인 '상쇠'의 생애를 중심으로 농악의 장단과 서사를 전개하며, 지역 정체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낸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상설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문화재단 간 협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 전통예술 콘텐츠를 타 지역에 소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간 상생과 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한 '2025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에도 선정, 전북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순수예술 분야 기획공연 2건을 추진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 7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호주 멜버른 예술인 협업 추진

예술콘텐츠 공동 창작... 전주시 활동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호주 멜버른과의 국제 협업 프로젝트 '2025 전주·멜버른 예술인 교류 프로그램 <모종의 모임(Seedling Sessions)>'에 참여할 국내 예술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전주문화재단과 호주 멜버른 시 산하 어린이 예술센터 아트플레이(ArtPlay)의 협업으로 추진됐다.

전주와 멜버른 예술인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실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지역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은 6월 1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구글 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3일 전주문화재단 및 팜북예술공장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예술인에게 2개월간 개인당 160만 원 상당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전주시 또는 멜버른에서 활동 이력이 확인 가능한 예술인으로 연령, 예술 장르, 외국어 능력에 제한은 없다. 전주문화재단 또는 아트플레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예술교육팀(063-283-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최라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류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형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어린이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실험하는 국제 협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전주와 멜버른에서 각각 3명의 예술인을 선발해 1:1로 매칭,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총 5회의 온라인 세미나와 팀별 자유회의를 통해 공동 창작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협업 결과물은 오는 9월 '2025 예술놀이축제'에서 참여형 전시 형태로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남원시,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국악예술고 선정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5년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전통 농악을 보존·계승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농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각 시군별로 1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남원시에서는 남원국악예술고가 전승학교로 선정돼, 청소년 중심의 농악 교육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승학교는 도내 총 7개 시·군에서 각각 1교씩 지정됐다.

남원시는 관소리와 농악, 혼향제 등 전통예술의 본고장으로, 깊은 역사성과 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예술교육 여건 또한 우수한 편이다.

특히 남원농악은 남도농악의 대표 유형으로, 특유의 구성진 가락과 공동체적 전통이 잘 살아 있어 교육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크다.

남원시는 전승학교인 남원국악예술고를 중심으로 농악 교육과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농악 기초이론, 악기 연주, 기본 무동 등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기 공연과 연계한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농악동아리 육성, 지역축제와의 공

연 연계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악이 학교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일상문화로 자리잡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번 전승학교 운영은 남원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광과 노정록 과장은 "이번 전북농악 전승학교 선정을 통해 전통예술을 다음 세대가 직접 체득하고 계승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문화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뮤지컬 '정글라이프' 김제서 열린다

정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물과 등장인물의 성격을 결합시켜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낸 뮤지컬 <정글라이프>가 오는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김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작품이다.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정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직장인들의 오피스 라이프를 리얼하게 풀어낸 공연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행복과 설렘이 찾아올 거라는 작은 응원을 보내며 많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6월 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 야간 관광 콘텐츠' 문화예술 프로그램 '별명달명' 개최

남원시 관광협의회 리플러스가 주최하는 감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별명달명'이 30일 오후 8시, 남원시 달빛정원 피오리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별을 보고(별명), 달빛을 느끼며(달명), 예술과 함께하는 감성 힐링 프로그램으로, 남원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의 메인 공연으로는 핸드팬 아티스트 사맛다가 출연한다. 사맛다는 독창적인 연주 스타일과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에게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오리움 공간 내에서는 빛과 영상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는 선착순 20명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외에도 '별명달명'은 현장 접수를 통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별명달명'은 남원의 자연과 예술을 연결하는 남원의 대표 야간 문화 콘텐츠로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몰입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매주 금요일 정기 운영을 목표로 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견 시각예술인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활동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나아가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해 창작 활동의 지속성과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간은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며, 접수는 이메일(jbart2024@hanmail.net)을 통해 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도내에서 최근 20년 이상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50세~65세의 중견 예술인이다.

지원 규모는 총 18명이며,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4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작품집제작비, 번역비, 프로필·작품 촬영비 등 포트폴리오 제작에 필요한 경비다. 특히, 올해는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예술 자원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오랜 시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중견 시각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조명하고, 그 활동을 기록·보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예술인의 가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